

“배우 김주혁, 벌써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SNS 등서 추모 물결 이어져

영화계 행사일정 줄줄이 취소

“당분간 추모분위기 이어질 듯”

지난 30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이별한 고(故) 김주혁(사진)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 선우배, 동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글을 올리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주혁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영화 ‘체비’의 고두심과 김성균은 31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주혁은 드라마에서 모자지간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고, 선친(김무생)과도 작품을 같이 하면서 잘 알던 사이여서 정말 아들이 같은 기분”이라며 “어젯밤 비보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고두심은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간 사암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성균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좋아하는 선배님”이라며 “최근 고인이 나온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뮤지컬 배우 정성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주혁과의 첫 만남을 추억하며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답백한 연기만큼이나) 더 좋았던 건 답백하고 인간적인 형의 모습이었습니다”면서 “형이 연기로 보여준 철학, 그리고 삶으로 보여준 배려와 가치, 더 깊이 아로새기며 살아갔었다. 형님이 벌써 그리워진다”라고 썼다.

KBS 2TV ‘1박2일’ 시즌3 연출자 김주혁과 호흡을 맞췄던 유호진 PD는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김주혁이 바닷물에 두 발을 담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1박2일’ 촬영 당시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배우 최희서도 SNS에 “더 서울워워즈”에서 수상할 때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하시고 트로피를 움켜쥐시던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속을 맴돌 것 같다. 그 침묵 속에서 연기를 향한 애정과 설렘이 느껴져서인지, 저 또한 잠시 코끝이 찡해졌었다”고 떠올린 뒤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그 열정을 저희가 이어 나가겠다”고 올렸다.

MBC 드라마 ‘무신’(2012)에서 김주혁과 호흡을 맞췄던 ‘범죄도시’의 배우 김진규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신”때 주혁이 형과 6개월 정도 함께 촬영



하면서 늘 붙어있었다”면서 “그 뒤로도 종종 배역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고(故) 김주혁 배우를 추모하기 위해 영화계도 침묵에 들어갔다. 예정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일정을 뒤로 미뤘다.

김혜수 주연의 영화 ‘미옥’ 제작진은 당초 11월 1일 열린 예정이었던 언론·배급 시사회를 취소했다. ‘미옥’ 측은 “고 김주혁 배우님에게 애도를 표하며 언론 시사회 및 홍보 행사를 취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사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혜수 등 주연배우들의 인터뷰도 줄줄이 취소됐다.

백운식·성동일 등이 주연한 ‘반드시 잡는다’ 측도 31일 오전 예정된 제작보고회를 취소했고, 최민식·박신혜 등이 출연한 ‘침묵’도 이날 오후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VIP 시사회 레드카펫 및 포토월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현빈·유지태가 주연한 영화 ‘꾼’ 역시 다음 달 1일 예정된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7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꾼’ 레드카펫 쇼케이스도 취소하기로 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계 전체가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로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당분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혁은 몇 년 전 MBC 드라마 ‘구암 허준’(2013), MBC ‘무신’ 등 사극을 내리찍으면서 한동안 깊은 슬럼프를 겪었다.

그러나 예능 출연 등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연기가 나의 길’임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 뒤부터는 드라마, 영화를 만나들며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고,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연기에 늘 몰입하던 그는 매번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장르로 시청자와 관객을 찾아갔다.

끊임없이 자신을 재적질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나는 일이 없지?’, ‘왜 나에게만 기회가 안 오지?’라고 말하는 후배들이 제일 한심합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온다고 말하죠. 연기에 대한 열정은 체력에서 나오니까, 체력을 키워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고, 배우로서 감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훈련하려고 조언합니다.”

그는 “배우들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저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구나’ 생각했다. 또 조문은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보며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했다. 아마 직업병인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처럼 연기 열정이 남쳤던 그가 유작 2편을 남겼다.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 ‘흥부’와 ‘독전’으로, 김주혁은 자신의 분량 활용을 모두 끝낸 상태였다.

고전 흥부전을 재해석한 ‘흥부’(조근현 감독)는 조선 현종 재위 당시 양반들의 권력다툼으로 백성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극이다. 김주혁은 어지러운 세상에 맞서며 백성을 돌보는 정의로운 양반 조역을 연기했다.

그는 제작발표회 당시 “전작들과 결이 다른 백성을 돕는 지혜로운 양반 조역 역을 맡아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독전’(이해영 감독)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조직의 정체불명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형사 원호가 이 선생 조직의 멤버 라코 손을 잡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주혁은 중국 마약시장의 거물 허립역으로 출연했다.

연말뉴스

‘송송커플’ 동화같은 결혼식

申연론 통해 인터넷 생중계

국내외 팬들 몰려와 복새통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 눈길

“어 홀 뉴 월드, 어 뉴 판타스틱 포인트 오브 뷰...”(모두 새로운 세계예요, 새롭고 환상적인...)

3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대표 주제가 ‘어 홀 뉴 월드’(A Whole New World)가 울려 퍼졌다.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었다.

‘태양의 후예’가 맺은 톱스타 커플인 송중기(32)와 송혜교(35)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맡은 가수 옥주현의 목소리였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은 옥주현은 ‘송송커플’이 직접 축하곡을 선택했다는 이 세레나데를 부르며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이날 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다. 송중기 학창시절 친구의 사회 아래 ‘송송커플’은 식장에 동시 입장했다.

송중기는 깔끔한 검은색 턱시도를, 송혜교는 등이 깊게 파인 화이트 빛깔의 크리스티앙 디오르 웨딩드레스를 선보여 우아함과 기품을 자랑했다.

신랑 신부 입장 후 송중기의 부친은 앞을 나와 송혜교에게 “이제부터 우리집 며느리”라며 두 사람에게 “건강하게 잘살아라”고 주례를 대신한 덕담을 건넸다.

송중기는 혼인 서약 때 눈물을 보였으며, 송혜교는 서약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에는 송혜교와 같은 소속사 사극인 배우 유아인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준비해 온 편지를 낭독했다.

이어 송중기와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나와 8년 전 송중기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우정을 줄줄이 언급하며 마지막에는 “혜교 누나, 제수씨, 내 친구 중기를 잘 부탁해”라고 인사를 건네 300명 하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부케는 송혜교의 지인인 화가 받았다.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이나 포토타임을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식이 치러진 신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라호텔 영빈관은 접근성이 좋은 야외에서 사진과 영상 취재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국내 언론보다는 중국 언론들이 ‘시티뷰’(도심이 보이는 객실)를 미리 선점하고, 드론까지 띄워 영빈관 내부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취재에 열을 올렸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띄워졌다. 양측 소속사는 예식 후 공식 사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폐백은 없으며, 신랑신부는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지는 않는다. 신접살림은 송중기가 지난 1월 구입한 용산구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마련한다. 이 집은 602㎡(182평)으로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웨딩화보를 촬영했으며, 정점장이 나오자 일일이 인사를 다니며 지인들을 결혼식에 초대했다.

두 차례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던 둘은 지난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열애 인정’ 절차를 뛰어넘는 전격 결혼 발표로 화제가 됐고,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내용이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 국내 외에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또한 3살 터울의 연상남-연하남 커플이라는 점,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맺은 절정의 순간에 사랑을 선택한 행보 등이 들의 러브스토리를 더욱 멋지게 완성했다.

연말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제15회 미래한국리포트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기분 좋은 날	3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5 팔도방송 스페셜	50 VJ 특강대 (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재)	10 중계방송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5 SBS 생활뉴스
11	00 평창 동계 올림픽 G100 특집 올림픽 성화 환영식 30 행복한 지도	55 매드독(재)	00 MBC 스포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도착 환영행사 30 20세기 소년소녀 (재)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도착 환영행사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문화사색 (재)	40 문화사색 (재)	00 SBS 12 뉴스 50 자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2017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명창대전 50 평창동계올림픽 청소년 페스티벌 관객이, 평창기자	30 통일전망대	30 통일전망대	55 닥터 365
2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무책상 위키 2	20 텔미몬스터 25 프리파라 2	20 텔미몬스터 2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0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다큐 원 배다! 골짜기의 반란 55 UHD 한식(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미래인간 시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4	00 4시 뉴스집중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켈리고 30 트레이닝 노트 세상을 건다 (재)	00 MBC 파워매거진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평창 동계올림픽 G-100 특별생방송 하나된 열정, 이제는 평창	5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평창 문화올림픽 G-100 성화봉공 축하 K-POP 콘서트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6		50 내 남자의 비밀 (재)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7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살피하는 남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2017 목포가요축제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5 문화의 향기 55 동행 (재)	10 고백부부	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같이 역사 3부 천하통일의 꿈! 일본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비디 09:30 플랑	09:40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공중점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선(재) 13:40 미래강연 Q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하러올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즘 16:30 한글이 야호 2(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은밀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20:50 세계테마기행 (내 인생에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 할로 오로라행) 21:30 한국기행 (가을 밭도둑을 잡아라 햇볕이 키우고 흙이 거들고) 21:50 EBS 다큐프라임 (비밀의 땅, 피미르 - 고산의 사람들) 22:45 극한직업 (남방열전, 구들과 난로)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 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일 (음 9월 13일 壬辰)

子	48년생 첨에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60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발연코 길한 방향으로 선화하겠다. 72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84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행운의 숫자 : 09, 18	午	42년생 뒤돌아 보라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54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6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벼이다. 78년생 중저대만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90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행운의 숫자 : 53, 20
丑	49년생 차원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61년생 비속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73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85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 행운의 숫자 : 36, 44	未	43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55년생 벌 단리 지켜놓고 보자. 67년생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79년생 변경이 불가피하다. 91년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낙관한 나머지 무리한다면 위엄을 자초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2, 36
寅	50년생 상대의 계락을 미리 읽을 수 있다면 이미 승세를 잡은 셈이 된다. 62년생 성사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74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절실히 필요할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7, 01	申	44년생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56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68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에 이르렀다. 80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담보하게 됨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39, 99
卯	51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63년생 경우에 따라서는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75년생 효과가 커진다. 87년생 여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한다. 행운의 숫자 : 05, 15	酉	45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57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69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68, 51
辰	52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64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늠을 잡는 것이 생산적이나, 76년생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88년생 본능적이러면 손해보기 마련이니 이성적 판단에 따라라. 행운의 숫자 : 08, 06	戌	46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58년생 선택하기에 애매한 조건이 주어지리라. 70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좋다. 82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39
巳	53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65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77년생 여간 함몰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 89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02	亥	47년생 끌리더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진다. 59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71년생 총통의 폐해는 의외로 대단할 수 있으니 절제하라. 83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 지라도 결과는 예상 밖으로 훌륭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1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